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에 나타난 ‘동양’과 ‘순수’ 인식의 비교

이병주(공군사관학교)

〈목 차〉

- | | |
|------------------------------|-----------------------|
| 1. 서론 | 4. 제제로서의 순수와 사회반영의 순수 |
| 2.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의 지향 | 5. 결론 |
| 3. 동양과 한국의 동일시와 오인된 동양
비판 | |

1. 서론

이 글은 조지훈의 『시의 원리』와 송옥의 『시학평전』이 문학사의 평가처럼 상반된 성격을 보이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시작한다. 시론사에서는 신비평을 동양의 시학과 연결 짓고 있는데,¹⁾ 이 글은 신비평과 동양 시학을 연결하는 시론사의 해석을 근거로, 조지훈이 긍정했던 동양의 시학과 송옥이 수용하려고

1) 신비평은 시 텍스트를 동양의 시학에서 말하는 ‘자연’에 비유될 수 있는 유기체로 파악한다. 또 그것에 접근하는 온당한 관점으로 사무사의 정관에 비유될 수 있는 초월적 시점을 요구하고 있다.(하희정, 『영미 신비평의 기본 관점과 한국적 수용의 두 양상』, 한계전 외, 『한국현대시론사연구』, 문학과지성사, 324면).

했던 신비평이 단순히 상반된 성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양’과 ‘순수’를 다루는 지점에서 공유하면서도 변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조지훈과 송옥이 각자의 시론에서 인식하고 있는 ‘동양’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조지훈과 송옥이 시론을 개진한 1950-60년대는 많은 작가가 T.S. 엘리엇의 전통론의 영향을 받아 전통을 찾는 데에 매진한 기간이었다.²⁾ 이 시기의 많은 작가와 마찬가지로 조지훈과 송옥도 ‘동양’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양’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통’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계기가 된 의문은 ‘전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지훈 시론과 송옥 시론에 나타난 ‘동양’ 인식과 ‘순수’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시론서가 등장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에 대표적인 시론서로 조지훈의 『시의 원리』(1953)와 김춘수의 『한국 현대시 형태론』(1958)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시론서들은 각기 다른 목표와 의의가 있다. 조지훈의 『시의 원리』는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시문학 일반의 기초를 단편적이 아닌 전체적 구조로서 전개한 글로서는 이것이 우리 문단 초유의 것”³⁾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춘수의 『한국 현대시 형태론』은 “자유시의 개념 정립을 통해 시의 형태 발생과정이라는 시사에 대한 인식상의 동기를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 시문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방법을 모색”⁴⁾했다

2) “엘리엇이 강조한 전통의 초월성은 당대의 많은 논자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현대성의 모더니즘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쪽 진영 모두에 해당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재래의 전통 개념에 대한 완전한 부정으로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존 논의의 갱신하고 보완하는 뜻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엘리엇의 ‘전통’이라는 말이 지닌 권위는 표현과 내용이 갈라져 양쪽에 배분되었다. 기호 표현의 권위는 모더니스트를 반대하는 쪽으로 이양되었고, 기호 내용의 권위는 이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양된 것이다.” (김종훈, 『한국 근대시의 ‘서정’: 기원과 변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9면).

3) 조지훈, 『시의 원리』, 『조지훈 전집 2』, 나남출판, 15면.

4) 박윤우, 『김춘수의 시론과 현대적 서정시학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회 엮음, 『한국의 현대 문학 : 한국 현대 시론사』, 모음사, 1992, 407면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60년대에도 자신의 시론(詩論)을 정립하려는 시인들의 시도는 계속되는데, 195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발간된 대표적인 시론서로 송옥의 『시학평전』과 김종길의 『시론』이 있다. 송옥의 『시학평전』은 《사상계》에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연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출판한 것으로, ‘문학 배경을 비교하는 안목으로 한국 시인의 입장에서’라는 부재처럼 외래사조를 소개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김종길의 『시론』은 1950년대 후반의 글들과 1960년대 초의 글들을 엮어서 1965년에 출판한 것으로, T.S 엘리엇을 중심으로 한 영시(英詩)에 대한 소개와 한국시의 실제 비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출판된 많은 시론서들 중에서 조지훈의 『시의 원리』와 송옥의 『시학평전』을 비교하고자 한다. 문학사에서 조지훈은 순수시를 지향하고 순수 시론을 펼쳤던 시인이자 시론가로 기록되어 있다. 조지훈의 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조지훈 시론의 ‘동양적 특성’을 살핀 연구이다. 박영호는 조지훈의 전통주의가 《문장》과 선배들의 지향점을 이어받은 것임을 언급한 후, 그가 우리의 옛것에서 민족의 원류를 찾으려 했다는 것과 자연을 자아와 일치된 주객일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⁵⁾ 이미순은 조지훈의 시론을 유기체론으로만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유기체론을 낭만적 유기체론과 동양적 유기체론으로 나눠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⁶⁾ 이미순은 조지훈이 『시의 원리』에서 “우주의 원리에 시의 특성을 두는 것, 시 창작과정에서 시인의 영감 외에 주의력을 강조하는 것, 동양적 우아미를 미적 가치의 우위에 두는

5) 박영호, 『조지훈의 전통주의』, 최승호 편, 『조지훈』, 새미, 2003, 91-105면 참고.

6) 여기서 낭만적 유기체론은 생명의 본질은 초월적인 것으로 보고 시인의 개성과 천재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동양적 유기체론은 생명의 본질을 초월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본래 합일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미순, 『조지훈의 유기체론』, 위의 책, 169-188면 참고).

것”⁷⁾을 발견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조지훈 시론에서 발견되는 동양적 유기체론의 완성형태라고 주장한다. 오형엽은 조지훈의 시론에서 보편성을 규명하면서, 그의 시론이 “에이브럼스가 설정한 문학론의 좌표인 모방론, 표현론, 존재론, 효용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각 영역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적으로 혼용되어 있으며 보다 유연하고 관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동서양의 사상과 문학이론을 아우르는 보편시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일관된 추구에서 기인한다는 점”⁸⁾을 밝혀낸다.

두 번째로 1950-60년대 시단의 정황을 바탕으로 조지훈의 시론을 살핀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순수 시론’이 어떻게 조지훈에 의해 완성되고,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영중은 조지훈과 김춘수의 시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조지훈이 “동서양의 사상과 시론을 가로지르는 보편적 사상과 시론을 기획”⁹⁾했으며, 조지훈의 순수 시론은 “‘민족’, ‘전통’ 또는 ‘휴머니즘’의 문제”¹⁰⁾와 같은 시단의 논쟁 과정에서 생성되었음을 밝혀낸다. 하지만 최호빈은 주영중의 주장과는 다르게 시단의 논쟁 과정에서 조지훈의 순수 시론이 완성되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순수 시론이 초기 글에서 발견되는 문학관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¹¹⁾

마지막으로 ‘전통주의’ 혹은 ‘전통 미학’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조지훈의 시와 시론을 살핀 선행연구들이 있다. 임곤택은 ‘전통 수용과 미적 전유’의

7) 위의 글, 188면.

8) 오형엽, 『조지훈 시론의 보편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4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8, 301면 참고.

9) 주영중, 『순수시론과 해체시론』, 『현대시론의 역학적 구도』, 서정시학, 2012, 50면.

10) 위의 글, 74면.

11) “그러나 등단 직후 발표 한글에 나타난 문학관과 해방기에 발표한 글에 나타난 문학관 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방기 좌익문학,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록 초기의 글이 시론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아포리즘 성격의 글이지만, 순수문학을 옹호하고 정치주의 문학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해방기의 글과 동일한 사유를 보인다.” (최호빈, 『해방 후 한국 현대시론의 형성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02, 18면.)

관점에서 서정주, 조지훈, 김춘수의 시를 연구했다. 그는 조지훈이 시작(詩作)의 방법으로 정서 표출과 언어세공에 집중한 이유를 유교적 분위기의 성장 배경과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찾고 있다. 임곤택은 전쟁 이후 시대가 바뀌어 “공적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그(조지훈-인용자)의 의식은 현실에 대해 직접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이동하게”¹²⁾ 되었음을 지적하고, 조지훈이 ‘전통’을 “과거로부터 전승된 ‘정신’”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조’라는 실천적 규범으로 구체화”했다고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지훈이 지조를 “현실을 인식하고 문학적으로 대응하는 근거”¹³⁾로 삼았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주장은 조지훈, 서정주, 박재삼을 전후 서정시의 전통 담론으로 연구한 조춘희의 글에서도 등장한다. 조춘희의 연구에선 조지훈의 전통론이 “시대를 초월한 영속적 가치에 대한 명명이자, 민족을 지탱하는 정신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성체”¹⁴⁾임을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문학적 자율성을 토대로 구성되는 것”¹⁵⁾이며, 조지훈이 이를 바탕으로 “직언을 통해 적극적 현실 개입을 보이는 등 저항하는 지식인의 면모”¹⁶⁾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이 글에서 논할 조지훈의 ‘동양’과 ‘순수’는 조지훈의 ‘전통주의’를 살핀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글은 위의 선행연구들이 조지훈이 ‘전통’을 호명하면서, ‘동양’을 호명한 이유의 규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전통’과 ‘순수’를 결합하는 조지훈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송옥은 문학사에서 1960년대 신비평을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송옥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송옥의

12) 임곤택,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의 미학적 수용 양상 연구 - 1950~60년대 서정주, 조지훈, 김춘수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6, 122면.

13) 위의 글, 123면.

14) 조춘희, 『전후 서정시의 전통 담론 연구-조지훈, 서정주, 박재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08, 106면.

15) 위의 글, 114면.

16) 위의 글, 212면.

시론을 신비평 도입과 실천으로 평가한 연구가 있다. 주영중은 1950년대에 백철과 김용권에 의해 이루어졌던 신비평의 이론적 검토가 1960년대에 이르러 김수영, 송옥, 김종길에 의해 신비평 이론을 적용한 실제 비평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세 명의 작가는 신비평이라는 공통된 방법론을 갖지만 “김수영은 현실 의식과 실험 의식을, 송옥은 시인의 순수 의식과 절대의식을 중시했으며, 김종길은 전통 정신과 보편 정신을 각각 중시”¹⁷⁾했다는 부분에서 각각 개별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주영중은 김수영·송옥·김종길의 시론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잇는 신비평의 계보로서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송옥의 시론에서 주체적 움직임을 찾으려는 연구가 있다. 박종석은 『시학평전』을 중심으로 송옥의 신비평의 수용과 주체적 시학에 대해 살핀다. 송옥이 김소월의 리듬을 비판한 부분은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김소월의 리듬 비판의 근거는 추상적임을 지적한다.¹⁸⁾ 이승원은 송옥의 『시학평전』과 『문학평전』을 살피면서 정지용에 대한 송옥의 비판은 입에 맞는 시만 골라서 자기의 의견에 끼워 맞췄기 때문에 송옥의 비평가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송옥이 김기림을 평가한 부분을 제시하며, 송옥이 6.25와 5.16을 거쳐 생성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김기림을 비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¹⁹⁾

마지막으로 송옥의 시론을 외래사조의 수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있다. 김유중은 1960년대 송옥의 비평 활동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송옥이 행했던 비평 활동은 전후(戰後) 사상적 공백을 메우는 과정으로서의 의의가 있지만, 외래사조에 도취 되어 논리적 파행으로까지 나아간다고 비판한다.²⁰⁾ 서지영은 송옥의 시론서인 『시학평전』·『문학평전』·『님의 침묵-전편해설』·『문물의 타작』이 변증법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서지영은

17) 주영중, 「1950~60년대 신비평과 김수영, 송옥, 김종길의 시론」, 앞의 책, 255면.

18) 박종석, 「송옥의 『시학평전』 연구」, 이승하 엮음, 『송옥』, 새미, 2001, 117-152면 참고.

19) 이승원, 「송옥론」, 이승하 엮음, 위의 책, 153-170면.

20) 김유중, 「사상의 창조와 실험정신」, 위의 책, 59-78면 참고.

송옥의 시론을 통시적으로 검토하며, 『시학평전』에 나타난 전통 부재와 서구 지향적인 모습이 “송옥 특유의 연역법적 사유 방식”에서 온다고 보았으며, 이는 “송옥의 비평을 관념적이고 도식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판단한다.²¹⁾ 문혜원은 송옥의 시와 시론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송옥은 보들레르를 재해석하며 한국 문학의 조건으로 소재와 제작의식로서의 ‘현대성’,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는 ‘내면성’, 작가의 참여를 주장하는 ‘시대성’을 제시한다.²²⁾

이 글은 외래사조의 매몰을 송옥의 시론의 한계로 지적한 선행연구들의 평가를 송옥의 시론을 주체적 탐구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통해 재고하고자 한다. 송옥이 ‘동양’을 호명한 이유를 한국 문학의 주체적 탐구의 과정으로 보고, 송옥이 평가하는 ‘동양’의 실체와 ‘동양’이 ‘전통’으로 세워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송옥이 인식하고 있는 ‘순수’를 통해 송옥이 나아가고자 하는 시론의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1950년대는 이봉래에겐 ‘황무지’, 고석규에겐 ‘여백의 존재성’, 고은에겐 ‘화전민’의 땅이라 명명되었다. 많은 문학자의 말처럼, 1950년대는 전쟁 이후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폐허를 복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남은 것을 찾는 방법이다. 조지훈과 송옥 또한 각각의 목표를 위해 폐허 위에 남은 것을 찾고자 노력했다.²³⁾ 이 과정에서 두 시론가는 우리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동양’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지훈이 『시의

21) 서지영, 『특수 속에서 보편의 추구』, 김학동 엮음, 『송옥 연구』, 역락, 2000, 202면.

22) 문혜원, 『보들레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 송옥의 시론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한중인문학회, 2007.4, 231-232면 참고.

23) 남은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담긴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은 한국 문학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유사성 때문인지 많은 어휘를 공유하고 있다. 시론(詩論)을 논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어휘의 사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은 공통되면서도 대립하는 두 시론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어휘가 ‘동양’과 ‘순수’라고 판단했다.

원리』에서 ‘전통’을 찾기 위해 ‘동양’을 호명하는 이유와 송옥이 『시학평전』에서 ‘동양’을 통해 외래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조지훈의 순수 시론은 1930년대부터 유진오와 김동리 사이에서 진행되고, 김환태·안희남·김오성에게 파급되어 논의되었던 개념이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논의된 순수 시론은 개념을 넘어 민족 문학과 동일시되는 모습을 보인다.²⁴⁾ 1950년대 이후 자신의 논리를 개진한 송옥의 경우에는 이 순수 시론의 성과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이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초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검토한 ‘동양’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에 나타난 ‘순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호명되고, 그들이 제시하는 언어관을 통해 ‘순수’의 실제 의미가 무엇 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2.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의 지향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의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두 시론서가 어떠한 문단의 상황에서 등장했고, 각각의 시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두 시론서의 서문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두 시론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훈의 『시의 원리』는 1947년 『시의 창작과 감상』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방송원고를 바탕으로, 1949년 서정주·박목월·조지훈이 공동간행한 『시창작법』에 일부가 수록됐으며, 1953년 피난 중에 대구에서 간행되었다가 절판된 후 1959년 재발간 된다.²⁵⁾ 조지훈이 서문에서 “일관된 주지(主旨)에 변동을 가져올

24) 홍신선, 『한국시와 불교적 상상력』, 역락, 2004, 169-185면 참고.

25) 주영중, 『순수시론과 해체시론』, 앞의 책, 16면.

정도는 아니었”²⁶⁾ 다는 말로 밝히고 있듯이, 『시의 원리』의 내용은 해방 이후와 전쟁 이후를 관통하는 조지훈의 문제의식을 담은 시론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글에서 나 개인의 시론(詩論)만을 고집하고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 그보다는 모든 대립되고 착종(錯綜)된 시론의 공통한 바탕으로서의 시의 통일된 자리를 찾고자 하였다. (...중략...) 그러나, 해방직후 시단(詩壇)의 혼미에 대한 계몽(啓蒙)과 당시 횡행하던 유물사관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겸한 소저(小著)의 의의는 적지 않았다.²⁷⁾

위의 인용은 조지훈 『시의 원리』에 서문이다. 조지훈은 『시의 원리』를 “해방 직후 시단(詩壇)의 혼미에 대한 계몽(啓蒙)과 당시 횡행하던 유물사관의 횡포에 대한 비판을 겸한 소저”라고 평가한다.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방기 조지훈의 문단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해방 후 좌파와 우파는 서로 대립하여, 문학단체를 발족하는 데에 열을 올린다. 좌파 문학단체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문맹(文盲) 퇴치 및 민주주의 보급 등”²⁸⁾의 계몽 활동을 진행했다. 조지훈은 이에 대항하여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 등과 함께 청년문학가협회(1946.04.04.)를 결성한다. 청년문학가협회는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문학의 정치적 활용을 반대하며, 문학의 순수성을 목표로 한다. 조지훈은 『해방시단의 과제』에서 “시의 사상이란 시 속에서 절로 섭취되는 영양소여야 하는 것”²⁹⁾이라고 역설하며 좌파 문학단체를 비판한다. 이 당시 조지훈의 글은 시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동시에 문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단체들을 향한 정확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³⁰⁾ 『해방시단의 과제』는 『시의 원리』에서도 일부 수정되어

26) 조지훈, 앞의 책, 16면.

27) 위의 책, 15면.

28) 박민규, 『해방기 시론과 이념의 형성』,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2014, 63면.

29) 조지훈, 『해방시단의 과제』, 『조지훈 전집 3: 문학론』, 나남출판, 1996, 224면.

30) 해방기 시론에 대해 검토한 박민규는 청년문학가협회의 “순수시론이 일정하게 완성된 것은 조지훈에 의해서”라고 평가한다. (박민규, 앞의 책, 174면.)

수록되어 있다. 역사의 격변기와 문단의 혼란을 동시에 겪으면서 자신의 시론을 개진한 조지훈은 『시의 원리』 서문에서 “시의 통일된 자”를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러한 선언은 『시의 원리』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시의 원리』는 ‘시의 우주’라는 시의 본질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개별 시를 통해 시의 구체적 특성을 분석하는 ‘시의 인식’과 시의 창작원리를 설명하는 ‘시의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비평이 해야 할 구실은 작자 혹은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 매개가 되어 의사전달과 이해를 복돋우는 데 있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 나라의 비평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인상 싶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비판해서 정리할 겨를도 없이 밀물처럼 밀려 오는 여러 가지 외래사조는 우리 문화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깨뜨리기 쉽다. 새로운 사조 중에서 우리가 역사를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으리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면서 흡수하고 동화하는 양식을 결정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야 말로 이 나라의 비평이 해야 할 기능일 것이다.³¹⁾

송옥은 『시학평전』의 서문에서 “주체적으로 비판해서 정리할 겨를도 없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외래사조는 우리 문화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깨뜨리기 쉽다”라고 말한다. 이는 전후(戰後) 유입된 외래사조로 인한 한국 문단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³²⁾ 송옥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면서 흡수하고 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31) 송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4, 4-5면. (원문은 한자이며, 인용자가 한글을 병기)

32) 전후 문학적 상황을 ‘지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영진은 “1955-1956년이 되면 지성을 둘러싼 전통서정파와 모더니스트들의 대립은 지양되면서 지성을 적극적으로 시에 도입하는 방법을 가지고 많은 논자들이 담론 실천을 보인다. 이때는 특히 엘리엇과 파운드를 비롯하여 영미 주지주의 시론, 신고전주의 시론, 실존주의 등과 같은 서구 이론에 기대어 시의 지성의 의미를 밝히고 한국 시작 실천에 적용함에 대해”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정영진, 『1950년대 시의 “지성”의 기원』, 『겨레어문학』 46권, 겨레어문학회, 2011.06, 232면.)

송옥은 1950년대의 시류(時流)를 이어받아 비평가로서 외래사조를 “주체적으로 비판해서 정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송옥이 “우리가 역사를 따라 발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송옥이 서구의 모습을 문학과 역사의 발전적 완성형태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옥이 한국 문단의 상황과 역사를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50년대 《후반기》 동인이 주축이 된 신세대론 혹은 모더니즘 시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³³⁾ 이것만 보았을 때 송옥이 한국 문학의 ‘전통’을 부정하고 ‘전통’의 부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학평전』의 서문과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송옥은 외래사조의 “주체적” 수용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외래사조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황진이, 김소월, 한용운, 정지용, 김기림 등의 작품을 분석하여 주체적 수용과 비평의 실천적 결과를 『시학평전』에 담았다.

두 시론의 서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두 시론서는 매우 다른 목적과 지향이 있다. 이는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조지훈의 『시의 원리』는 독자를 시를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로 상정하고 시의 생성원리부터 감상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송옥은 『시학평전』을 통해 외국문학을 소개하고 외래사조를 한국 문학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다른 작가들에게 비평적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인다. 더불어 두 시론서는 서론에서 대립 집단을 설정하고 있다. 조지훈의 경우 ‘유물사관’을 가진 집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송옥은 외래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33) 송옥의 이러한 태도는 1950년대 모더니즘 시론이 한국 시단을 낡은 것,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고 발전된 것과 새로움에 경도되었던 모습과 유사하다. 한 예로 《후반기》 동인인 김규동은 “그러나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과학문명의 진보(進歩)에 대하여 한번은 인정하는 눈치를 보이면서 문학문명의 발달이란 것은 조금치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라며 문학을 발전적 양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규동, 『現代詩(현대시)와 Mechanism』(1954.09), 『새로운 시론』, 산호장, 1959, 65면.)

3. 동양과 한국의 동일시와 오인된 동양 비판

앞서 서론에서 조지훈 시론에 나타난 동양적 특성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조지훈 시론에 나타나는 동양 시론의 특성은 많은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지훈의 시론에 나타나는 동양적 성격을 재론하는 것을 피하고, 조지훈의 시론에서 '동양'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양'을 '전통'으로 여기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우아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은 동서의 고전예술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예술의 특질을 “기품 있는 단순과 고요한 위엄”이라고 한 빙켈만의 유명한 말도 이러한 뜻에서 해석할 수 있거니와 대체로 이 우아미는 동양적 정신미의 한 최고 경지라고 하겠다.³⁴⁾

조지훈은 『시의 원리』의 두 번째 장인 ‘시의 인식’에서 ‘시의 세 가지 기본 성격’을 고찰한다. 그는 세 가지 성격을 “‘우아(優雅)한 시’와 ‘비장(悲壯)한 시’와 ‘관조(觀照)하는 시’”³⁵⁾로 분류한 후, “우아미학(優雅美學)의 권위는 아무래도 공자(孔子)라고 할 것”³⁶⁾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파악하고 있는 ‘동양’이 중국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우아미학”의 최고가 공자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이를 설명하는 예시로, 공자의 예나, 두보의 시를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지훈은 박목월의 『나그네』와 조선의 시조 두 편을 통해 우아미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 시들을 “멋의 경지”³⁷⁾로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시인 『가야금』을 “동양시의 한 경지”³⁸⁾라고

34) 조지훈, 앞의 책, 87면.

35) 위의 책, 86면.

36) 위의 책, 88면.

37) 위의 책, 90면.

38) 위의 책, 92면.

표현하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아미학의 정수(精髓)인 공자와 그 우아미를 갖추고 있는 조선 시조와 박목월의 시를 동일선에 둔 동시에, “멋의 경지”라는 주체적 수용을 보여준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자신의 시인 『가야금』을 제시하여, 이것이 ‘동양’의 미임을 강조한다.³⁹⁾ 이는 조지훈의 이론적 혼동이나 모호함이 아닌 ‘동양’의 전통을 한국의 ‘전통’과 묶으려는 시도이다.

사람들은 모두들 전통이란 무슨 공중에 매달린 두영박처럼 생각한 나머지, 따 오려면 아무나 쉽게 따 올 수 있고 버리려면 언제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참뜻의 전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을 고심참담한 노력 속에서 창조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⁴⁰⁾

조지훈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을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생명을 고심참담한 노력 속에서 창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지훈에게 ‘전통’은 서양에서 찾거나 동양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고민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동양’의 하위범주로 한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중국과 한국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각각 주체로 존재하는 동시에 두 대상이 ‘동양’으로서 통합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동양의 고전과 한국의 현대시를 같은 미적 완성도라 주장하는 것은 전통을 내부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주체적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장미는 현대문학의 성격”⁴¹⁾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비장미를 “슬픔의 미”⁴²⁾라고 표현하며, “우리 예술은 모두가 그 속에 어딘지 모르게 슬픔의 핏줄”⁴³⁾이 흐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미루어

39) 이에 대해 주영중은 조지훈의 순수 시론을 ‘연속적 세계관과 전통의 창조적 변용’이라 명명한 바 있다. (주영중, 앞의 책, 75-87면 참고).

40) 조지훈, 앞의 책, 20면.

41) 위의 책, 93면.

42) 위의 책, 92면.

43) 위의 책, 94면.

볼 때 조지훈은 동양미의 최고 경지인 우아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조를 예시로 들고, 현대문학의 성격인 비장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술을 “슬픔의 핏줄”이란 말로 설명하여 한국 문학이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전통과 현대의 가능성을 공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지훈은 우리 시의 전통과 현대적 가능성을 확장한 동시에 “슬픔의 미”로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아미가 고요한 맛과 휘두러진 멋의 두 가지 면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각기 화사한 쾌락미(快樂美)와 부박한 골계미(滑稽美)를 이루듯이 이런 비장미(悲壯美)도 애련하고 힘찬 두 면이 있어 각기 ‘퇴폐미’(頹廢美)와 ‘투쟁미’(鬪爭美)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쾌락, 골계, 퇴폐, 투쟁의 2차적 미(美)는 한 걸음 자칫하면 참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으니 그러한 2차적인 미 자체가 공연한 목적이 될 때 인간 및 예술 정신의 상실을 초래하기 쉬운 때문이다.⁴⁴⁾

조지훈은 “현대문학의 성격”으로 파악한 비장미의 속성을 “‘퇴폐미’(頹廢美)와 ‘투쟁미’(鬪爭美)”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는 “2차적 미(美)”인 “쾌락, 골계, 퇴폐, 투쟁”의 미가 “참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날 위험”을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는 그가 서문에서 밝힌 “유물사관의 횡포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훈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2차적인 미 자체가 공연한 목적”이 되는 상황이며, 문학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이다. 조지훈이 “인간 및 예술 정신의 상실”을 경계하면서 추구하는 “참의 아름다움”은 그가 한국의 전통을 ‘동양’의 전통과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현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호명된 “슬픔의 미”를 말한다. 하지만 “슬픔의 미”는 그가 제시한 시들을 통해 살펴보면 제재(題材)로서의 ‘순수’ 즉, 주제로서의 “슬픔”으로만 나타난다. 이는 추후 ‘순수’를 논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장미-슬픔의 미-우리 현대시의 슬픔’으로 전개되는 논리의 과정이다. 조지훈은 우리 현대시의 슬픔을 보여주는 대표작가

44) 위의 책, 94면.

로 김소월을 제시하고, 김영랑의 『두견』과 유치환의 『수(首)』를 제시한다.⁴⁵⁾ 하지만 그가 제시한 시편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다면, 이는 한국 문학에도 ‘비장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제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조지훈의 시론에서 호명된 ‘비장미’는 모든 현대성을 포함하는 무한한 확장이 아닌 ‘순수’한 제재(題材)의 시편만을 높이 평가하는 제한적 확장이었다. 이는 순수 시론의 입장을 관철하고 주체적으로 한국의 ‘전통’을 찾기 위한 전략적 제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귀절을 담고 있는 우리 고전시가(古典詩歌)가 과연 지금 창조되고 있는 예술품(藝術品)의 가치(價値)를 밝혀주는 참된 고전(古典)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그렇다>고 서슴치 않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오히려 우리 나라의 고전(古典)은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기보다 우리말의 수사(修辭)와 용법(用法)과 낱말이라는 귀중한 <재료>를 간직하고 있는 광으로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고전(古典)의 가치(價値)를 살리는 데 더욱 효과가 있는 태도일 것이다.⁴⁷⁾

반면 송옥은 윤선도와 김광옥의 고전시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송옥은 우리의 고전을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기보다 우리말의 수사(修辭)와 용법(用法)과 낱말이라는 귀중한 <재료>를 간직하고 있는 광으로서 중요”하다

45) “우리의 현대시에도 이 슬픔은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도 육체의 슬픔을 영혼의 슬픔에까지 파고 들어간 이는 아마도 김소월(金素月) 그 사람일 것이다.” (위의 책, 95면)

46) 김인환은 조지훈이 『시의 원리』에서 분석하는 미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미의식을 작품의 구조원리로 포착하지 않고 주관적 인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조지훈의 해석은 작품의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모호한 어휘로 진술되어 있다. 흔히 정한(情恨)의 노래라고 불려지듯이 슬픈 감정은 비장보다 우아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슬픔을 비장미에만 귀속시킨다면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관조미의 해석이 자못 번거롭지만, 그것의 예로 제시한 작품들은 모두 우아미에 속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김인환, 『한국 문학의 미의식』, 황폐강 외 3인 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8, 29면).

47) 송옥, 앞의 책, 29면.

고 평가절하하는데, 이 부분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통 단절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도 송옥이 우리의 전통을 단절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는 동양이나 한국의 과거에는 배울 것이 없다거나 혹은 서양의 것만이 우월하다는 논리가 아니다. 송옥이 고전의 가치를 “재료”로 격하시키고 있는 까닭은 윤선도와 김광옥의 시가가 “지금 창조되고 있는 예술품(藝術品)의 가치(價値)를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옥이 평가하고 있는 윤선도와 김광옥의 시를 살펴보고, 평가의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송옥이 인용한 윤선도 『오우가』의 구절은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한 부분이고, 김광옥 『율리유곡』의 구절은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부분이다. 송옥이 이러한 고전시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것과 “지금 창조되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가 고전시가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 이유는 “지금”의 현대적 정신과 전혀 다른 구도(求道)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옥은 “현대(現代)에 알맞은 역사 감각(歷史感覺)을 길러줄 만한 전통(傳統)사상(思想)의 원천(源泉)이 없다”⁴⁸⁾는 것에 비분한다. 따라서 송옥의 관점으로 볼 때, 윤선도와 김광옥의 시가는 ‘역사 감각’이 부재하기 때문에 평가 절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기준은 송옥이 T.S. 엘리엇의 전통관을 한국 문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대에 알맞은 역사 감각”이 존재하는 작품이 있다면, 송옥이 고전시가를 재평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시조가 절창(絶唱)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소원이 작자의 〈놀라운 표현〉을 거칠 때에, 독자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된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표현의 원인은 추상적시간이 구체적이며 너무나도 생생한 이때위를 거쳐서 나타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도 있다. 즉 《한 허리 둘हे 내여》, 《이불 아래 서리서리

48) 위의 책, 22면.

너헛다가》, 《구뵤구뵤 퍼리라》, 이처럼 시간이 생생한 이때취를 거쳐서
〈행동적(行動的)으로〉 혹은 능동적(能動的)으로 표현된 예는 아마 영국이
나 미국의 이미지스트의 작품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⁴⁹⁾

송옥은 황진이의 시조를 인용한 후, 일반적인 해석에 일부 동의하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송옥이 황진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황진이의 시조를 “영국이나 미국의 이미지스트의 작품”과 비교해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고평한 부분이다. 송옥이 황진이의 시조를 고평하는 이유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송옥은 황진이의 시조에 나타난 이미지 형상화 방법론이 지금의 시에도 유효한 방법론이라는 판단했고, 그의 기준에선 황진이의 이미지 형상화 방법은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역사 감각’이 단순한 시대적 혹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것은 송옥의 시론을 부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⁵⁰⁾ 송옥이 한국적인 것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한용운 시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호평하는 부분에서도 발견된다.⁵¹⁾ 송옥이 필요한

49) 위의 책, 135면.

50) “동양의 전통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송옥에게 있어 새로운 문학 또는 문화의 모델은 서구의 예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서지영, 앞의 책, 194면), “‘화전민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과거 부정의 정신이 일종의 ‘새것 콤플렉스’로 전이되어, 재래의 동양적인 것은 모두 부정하고 일견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서구 쪽으로 경도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엄성원, 『새로운 문학 전통수립을 위한 탐색』, 김학동 엮음, 앞의책, 232면).

51) 황선희와 이경수의 연구는 송옥의 전통 개념을 한용운을 통해 살펴보면, “대승선(大乘禪)의 사상을 송옥은 곧장 동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 전통적인 것으로 연결시켜 이해”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글은 황선희와 이경수의 성과를 받아, 송옥의 한용운 해석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서 그의 시론이 ‘동양’과 ‘전통’에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해석하고자 했다. (황선희·이경수, 『송옥과 김우창의 시론에 나타난 전통에 대한 태도-만해 한용운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집, 우리어문학회, 2014.05, 600면.)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고자 했던 것은 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외래사조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송옥이 한국의 ‘전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그가 ‘동양’의 전통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선행연구들의 평가를 재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인식을 보고자 한다.

그러나 소월(素月)이 지닌 동양(東洋)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잘못 파악한 동양(東洋)이며 동양(東洋)의 야원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백(李白)이나 두보(杜甫)를 읽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나라의 근대시(近代詩)에 나타난 동양(東洋)이 반드시 가장 즐기차고 심오하고 환칠한 동양(東洋)의 정화(精華)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으리라. 시대(時代)에 뒤떨어진 작품이나 의미가 없는 감정을 〈동양적(東洋的)〉이라고 함으로써 감쌀 때는 이미 지났으며, 이와 같은 태도처럼 동양전통(東洋傳統)에 대한 모욕이 없을뿐더러 이처럼 우리 현대시(現代詩)와 참다운 동양전통(東洋傳統)을 갈라 놓아, 양자(兩者)를 모두 메마르게 하는 데 공헌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⁵²⁾

위의 인용은 송옥이 김소월의 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송옥이 비판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소월이 인식하고 있는 ‘동양’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나 의미 없는 감정”이다. 그는 김소월이 ‘동양’을 “반드시 가장 즐기차고 심오하고 환칠한 동양(東洋)의 정화(精華)”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송옥이 볼 때 오인된 ‘동양’이었다. 송옥이 파악하고 있던 ‘동양’은 정지용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두보(杜甫)는 자연(自然)과 사회(社會)와 정치(政治)와 종교(宗教)를 종합(綜合)한 작품을 썼”⁵³⁾다는 말로 등장한다. 송옥이 김소월을 “동양전통을

52) 송옥, 앞의 책, 137면. (강조는 원문을 따랐다.)

53) 송옥은 정지용의 『백록담』에 수록된 「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작품은 거의 구체적인 자연(自然)의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현대시(現代詩)의 세계(世界)는 아니다. 그는 한시(漢詩)와 흡사한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을 한시(漢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운(餘韻) 혹은 신운(神韻)을

갈라 놓”았다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송옥이 볼 때, 김소월과 정지용은 수많은 “동양전통” 중에서 “자연”이나 “종교”와 같은 대상만을 가져와 ‘전통’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소월과 정지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송옥은 ‘동양’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양의 전통을 단절로 본 것이 아니며, 김소월과 정지용 같은 과거의 시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편협한 ‘동양’ 인식을 비판하고, “참다운 동양전통”을 지향하는 것이다. 오히려 송옥은 중국의 시문학의 성과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동양 시학의 인식을 요구한다.⁵⁴⁾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나 의미 없는 감정”이란 비판의 내용은 다음 장에 이어질 송옥이 인식하고 있는 ‘순수’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음 장에서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동양(東洋)의 전통에서는 역사의식(歷史意識)의 뒷받침이 되는 시간(時間)의식(意識)의 뚜렷한 설명을 얻기 어려운 것 같다. 유교(儒敎)의 전통주의(傳統主義)는 과거를 향해서 뒷걸음질치는 것이었으며, 불교(佛敎)는 아주 송두리째 시간(時間)의 존재(存在)를 부정하여 역사의식(歷史意識)을 초월하고 있는상 싶다.⁵⁵⁾

이제 송옥이 파악하는 올바른 ‘동양’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옥은 엘리엇의 “역사의식”을 설명하며, “시간의식”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다.

맛볼 수 없는 빈약하고 메마른 작품이다. 동양적 시세계(東洋의 詩世界)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모욕이 될 뿐임을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리라. 두보(杜甫)는 자연(自然)과 사회(社會)와 정치(政治)와 종교(宗教)를 종합(綜合)한 작품을 썼던 것이다!” (위의 책, 204면)

54) “우선, 엘리엇트와 같은 사고(思考)노선(路線)을 따른다면 우리는 향가(鄕歌)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문학사(文學史) 전체, 그리고 이 역사와 떼어버릴 수 없는 시경(詩經) 이후의 중국문학사(中國文學史) 전체, 그리고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이 좁아든 오늘날, 우리가 그 앞에서 눈 감을 수 없는 유럽문학사(文學史) 전체, 이러한 것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살아 있다고 의식하면, 이 사이에 끼어서 작품을 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위의 책, 12면)

55) 위의 책, 21면.

이를 바탕으로 바라볼 때, “유교”는 “뒷걸음치는” 시간의식을 갖고 있으며, “불교”는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송옥이 “유교”와 “불교”라는 “동양의 전통”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송옥이 만해의 시와 타고르의 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옥은 『님의 침묵』을 통해 만해가 타고르를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 그 이유로 타고르의 시에는 “사회와 역사” 그리고 “혁명”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⁵⁶⁾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송옥이 “시간의식”과 결합된 “동양의 전통”은 높게 평가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조지훈과 송옥은 모두 ‘동양’을 통해 주체적인 ‘전통’을 성립하려는 출발 지점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각자가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해 도달한 도착 지점은 달랐다. 조지훈의 경우는 한국의 ‘전통’을 ‘동양’과 동일시하고, ‘비장미’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다시 “슬픔의 미”라는 시의 주제적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여 ‘전통’의 영역을 좁힌다. 반면 송옥의 경우는 한국 작가들이 오인한 ‘동양’을 비판하며, “자연(自然)과 사회(社會)와 정치(政治)와 종교(宗教)를 종합(綜合)한” 올바른 ‘동양’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엘리엇의 “시간의식”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이는 ‘순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4. 제재로서의 순수와 사회반영의 순수

조지훈은 ‘동양’의 고전과 한국 시조를 미학적으로 동일시하고 더 나아가 한국 현대시에서 “비장미”를 발견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현대의 가능성을

56) “타고오르의 시집(詩集) 『원정(園丁)』과 『님의 침묵(沈默)』을 읽고 두드러지게 느끼게 되는 것은 타고오르에게는 사회(社會)와 역사(歷史)가 없고 더군다나 혁명(革命)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의 책, 311-312면).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전통’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며, ‘순수’한 문학적 제재(題材)로 이루어진 시를 현대시로 제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편 송옥은 과거의 한국 시인들을 비판하며, 한국 시단에는 ‘동양’의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는 작가가 없으며, “시간의식”을 통해 제대로 된 ‘동양’을 인식을 추구했다. 전통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둘은 ‘순수’를 다루는 부분에서 다시 의견을 달리한다.

시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형태는 서정시이다. 서사시라든가 극시(劇詩)라든가 사상시(思想詩)란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산문의 발달과 함께 산문 속에 해소되어 버릴 운명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의 시 전통은 향가 이래 순연한 서정시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시의 독립운동은 서구에서처럼 그렇게 절실한 문제는 아니나 근자에 보이는 시의 산문에의 굴복과 해소적 경향은 이러한 상징과 운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광대한 산문예술에 압도되더라도 좁으면서라도 치밀한 서정성과 비평성의 일치에서 오는 연금-그것이 현대시가 소생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아니 근원적 형식이다.⁵⁷⁾

조지훈은 ‘시와 산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시의 순수성”에 대해 논한다. 그는 “시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형태는 서정시”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주장이다. 여기서 독자는 시의 “순수한 형태”와 “서정시”가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서정시는 곧 ‘순수’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어서 조지훈은 “우리의 시 전통은 향가 이래 순연한 서정시”에 있다고 논하는데, 이를 통해 서정시가 순수(순연(醇然))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시의 원리』의 독자가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의 시 전통”이 “향가”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서정시”가 곧 “향가”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된다. 더불어 그는 “서정성과 비평성의 일치에서 오는 연금-그것이 현대시가 소생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아니 근원적 형식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개진한 논리를 바탕으로 ‘순수=서정시=향가=전통=현대시=근원적 형식’이라는 구조가

57) 조지훈, 앞의 책, 132-133면

완성된다. 이는 조지훈이 개진해온 ‘순수’ 시론을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우프트만은 “태초에 리듬이 있었다”라고 말했거니와 진실로 리드미컬한 언어, 춤추는 언어는 시의 생명이다. 이 시의 생명은 담겨질 생각과 나타날 형터리가 융합된 것이다. 담겨질 생각은 감동된 언어, 나타날 형터리는 울동하는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의 태반에 앉은 생명의 최초 형태를, 언제나 요약되고 함축 있고 순수한 생명이 울동하는 몇 마디의 언어라고 믿는다.⁵⁸⁾

조지훈은 “시의 생명이 깃들이는 육신, 곧 시의 형식은 언어의 순일(純一)한 결정(結晶)”⁵⁹⁾이라고 설명한다. 결정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 또한 순수해야 한다. 따라서 조지훈이 인식하는 ‘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는 시의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지훈은 “시의 생명에 담길 생각”, 즉 ‘제재(題材)’를 “감동된 언어”와 “울동하는 언어”라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시의 언어는 “짧고 함축 있는 생명 그대로의 최초발성”이며, “순수한 사념”을 언어로 구체화 시키는 “춤”이다.⁶⁰⁾ 이 두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지훈은 시의 ‘제재(題材)’를 시의 작은 단위 또는 사념으로 명명하며, 이는 “순수”하고 “생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조지훈이 시의 언어를 “영감(靈感)”⁶¹⁾, “생명의 고조상태를 표현”⁶²⁾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지훈은 언어뿐만 아니라 시의 소재에서도 ‘순수’한 자연을 찾는다.⁶³⁾ 조지훈이 설명하는 언어관은 송옥이 『시학평전』에서 외래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발레리의 언어관

58) 위의 책, 58면.

59) 위의 책, 47면.

60) 위의 책, 49면.

61) 위의 책, 58면.

62) 위의 책, 59면.

63) “시는 시인이 자연을 소재로 하여 그 연장으로써 다시 완미(完美)한 결정(結晶)을 이룬 ‘제2의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위의 책, 21면).

과 유사하다.⁶⁴⁾

발레리가 산문(散文)의 제약(制約)으로부터 해방시킨 말들(즉 시어(詩語))은 하나의 외떨어진 언어를 형성하기 쉬우리라. 그러나 시(詩)의 관용어(慣用語), 어휘 그리고 문장법(文章法)이 산문(散文)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시어(詩語)는 더욱 인공적(人工的)으로 될 것이다. 구두어(口頭語), 즉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변화하는 동안에 글에 사용하는 말이 끝내 고정(固定)되어 있는 경우, 이것은 결국 일반사람들이 말하는 구두어(口頭語)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장어(文章語)와 교대(交代)되지 않으면 안 된다.⁶⁵⁾

송옥은 발레리와 엘리엇의 시론을 비교하면서, 발레리의 논의보다 엘리엇의 논의를 더욱 고평한다. 그 까닭은 엘리엇이 시대를 담고 있는 언어, 운문 언어와 산문 언어의 비구분,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구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송옥이 자연스럽게 발레리의 ‘순수’를 부정하고, 엘리엇의 ‘역사의식’을 지향하게 만든다.⁶⁶⁾ 앞서 김소월의 ‘동양’ 인식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이나 의미 없는 감정”도 엘리엇의 입장에서 ‘전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송옥은 발레리가 시도한 시 언어와 산문 언어의 구별을 위협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송옥이 “고정되어 있는” 언어를 경계하기 때문인데, 그는 시의 언어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구두어”에

64) 조지훈 또한 발레리의 말을 인용하며 “그가 말한 미감과 영양가는 곧 내가 말하는 정서와 사상의 관계인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 조지훈-송옥과 발레리-말라르메-엘리엇에 대한 영향 관계를 논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글의 논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위의 책, 138면)

65) 송옥, 앞의 책, 339면.

66) “요약해서 말하면, 엘리엇트가 노리는 가장 훌륭한 시(詩)는 세대(世代)에 따라 변화하는 <생생한 느낌과 생생한 생각>을 역시 세대(世代)마다 달라지는 이상적 회화(理想的會話)의 언어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물론 그가 시(詩)에서 역사성(歷史性)과 사회성(社會性), 그리고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나온 생각이다.” (위의 책, 340면).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산문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면”, “더욱 인공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인공적”이라는 말에 집중하여 송옥이 생각하는 시의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옥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언어는 “반생명적(反生命的)”⁶⁷⁾이며, 이는 ‘순수’와는 거리가 먼 “인공”의 언어로 보았다. 이는 발레리를 순수시, 엘리엇을 비순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더불어 유종호가 송옥의 시 세계를 “산문적”인 것의 대담한 도입⁶⁸⁾으로 평가한 것도 엘리엇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송옥은 엘리엇의 언어관과 시론을 수용하고, 한용운의 시를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산문시, 산문의 언어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송옥이 인식하고 있는 ‘순수’는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선별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시의 언어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훈은 시의 형식과 언어를 “순연” 혹은 “순수”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조지훈이 주장하는 시의 ‘순수’는 문학 제재(題材)로서의 ‘순수’이며, “제2의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송옥은 실생활과 괴리된 언어를 “인공적”인 것으로 보고, “인공적”인 것을 배제한 ‘순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지훈과 송옥의 견해 차이는 각각 송옥이 분석한 발레리의 ‘순수’ 인식과 엘리엇의 ‘순수’ 인식과 유사하다.⁶⁹⁾

5. 결론

이 글은 조지훈의 『시의 원리』와 송옥의 『시학평전』에 나타난 ‘동양’과 ‘순수’

67) 위의 책, 341면.

68)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이승하 엮음, 앞의 책, 16면.

69) “따라서 우리는 엘리엇의 시(詩)가 인간조건(人間條件)이 마련하는 경험을 주제(主題)로 하는 비순수(非純粹)의 시(詩)이며, 발레리의 시(詩)는 이와 같은 경험을 초월한 보편적(普遍的)본질(本質)의 세계를 주제(主題)로 한 순수시(純粹詩)라고 구분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 (송옥, 앞의 책, 31면)

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학사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평가받는 조지훈과 송옥의 시론이 ‘동양’과 ‘순수’를 다루는 지점에서 공유하면서도 변별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두 시론서는 실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집필되었다. 조지훈의 『시의 원리』는 시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시의 개념들을 설명하는 시론서였던 반면에, 송옥의 『시학평전』은 당시 범람했던 외래사조의 주체적 수용을 고민하고, 다른 작가들에게 본인이 진행한 실질적인 비평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집필된 다른 시기의 두 시론서는 ‘동양’과 ‘순수’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고, 변별되는 지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글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조지훈의 시론과 동양 시론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지훈이 바라보는 ‘동양’과 ‘전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지훈의 ‘동양’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중국 문학의 위상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는 과정에서 호명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지훈의 ‘동양’ 호명은 중국의 공자, 두보와 같은 문학가를 위시하여 ‘전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조지훈은 ‘전통’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술이 ‘현대문학’의 핵심인 ‘비장미’를 내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전통 찾기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조지훈은 ‘비장미’를 내포한 시를 모두 포괄하지 않고, “슬픔의 미”를 가진 한국 시만을 ‘전통’으로 세우고자 한다. 이는 비장미 중에서도 2차적 미(美)인 “퇴폐미”와 “투쟁미”로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조지훈의 논리 전개는 그가 서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유물사관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순수’한 제재(題材)를 가진 시를 현대시로 고평하려는 방법이었다.

반면 송옥이 인식하는 ‘동양’은 조지훈이 주장하는 “우아미의 최고 경지”가 아닌 “자연(自然)과 사회(社會)와 정치(政治)와 종교(宗教)를 종합(綜合)한” 비평적 능력을 갖춘 대상이었다. 송옥이 김소월과 정지용을 비판한 이유도 그들이 “자연”과 “종교”만을 선택적으로 ‘동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송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김소월과 정지용을 비판하며 한국 문학이 찾아야 할 전통을 유럽까지 확장한다. 이와 같은 송옥의 ‘동양’ 인식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해석한 전통 단절론 혹은 동양 전통 부정론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송옥은 ‘동양’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황진이의 이미지 형상화 방법을 높이 평가하고, 타고르와 한용운을 비교하며 “시간의식”이 담긴 한용운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송옥이 “역사의식”과 “시간의식”을 바탕으로 ‘동양’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시간의식”은 송옥이 ‘순수’를 다루는 부분에서 다시 등장한다.

조지훈이 인식하는 ‘순수’는 송옥이 설명하는 발레리 언어관 및 시론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조지훈이 주장하는 시의 ‘순수’는 ‘순수’한 문학적 제재(題材)와 “함축 있는 생명”으로 설명된다. 이는 송옥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공”의 언어이다. 송옥의 경우 “인공”과 대비되는 엘리엇의 언어관을 설명하며 제시한 “역사성과 사회성, 그리고 경험”이 있는 시의 언어를 주장한다. 이를 통해 송옥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구두어(口頭語)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장어”를 ‘순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옥이 시의 언어에 관한 생각을 “역사의식”과 “시간의식”을 바탕으로 정립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의 언어를 독립적인 존재나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언어의 ‘순수’한 본질로 바라보고 있었다.

■ 주제어: 조지훈, 시의 원리, 송옥, 시학 평전, 동양, 순수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지훈, 『조지훈전집2:시의 원리』, 나남출판, 1996.

_____, 『조지훈전집3:문학론』, 나남출판, 1996.

송 옥, 『시학평전』, 일조각, 1964.

2. 논문

김중훈, 「한국 근대시의 ‘서정’: 기원과 변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08.

문혜원, 「보들레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 송옥의 시론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한중인문학회, 2007.4, 211-233면.

오형엽, 「조지훈 시론의 보편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4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8, 275-303면.

이 찬, 「송옥 시론 연구 - 『시학평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1집, 민족어문학회, 2005.04, 223-290면.

_____, 「조지훈의 『시의 원리』 연구: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3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419-452면.

임곤택,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의 미학적 수용 양상 연구 - 1950~60년대 서정주, 조지훈, 김춘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06.

정영진, 「1950년대 시의 “지성”의 기원」, 『겨레어문학』 46집, 겨레어문학회, 2011.06, 220-256면.

조춘희, 「전후 서정시의 전통 담론 연구-조지훈, 서정주, 박재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08.

최호빈, 「해방 후 한국 현대시론의 형성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02.

황선희·이경수, 「송옥과 김우창의 시론에 나타난 전통에 대한 태도송옥과 김우창의 시론에 나타난 전통에 대한 태도-만해 한용운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집, 우리어문학회, 575-604면.

3. 단행본

김규동, 『새로운 시론』, 산호장, 1959.

김학동 엮음, 『송옥 연구』 역락, 2000.

문혜원, 『한국근현대시론사』, 역락, 2007.

박민규,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2014.

이승하 엮음, 『송옥』, 새미, 2001.

주영중, 『현대시론의 역학적 구도』, 서정시학, 2012.

최승호 엮음, 『조지훈』, 새미, 2003.

한국현대문학연구회 엮음, 『한국의현대문학: 한국현대시론사』, 모음사, 1992.

한계전 외 3인 편, 『한국현대시론사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홍신선, 『한국시와 불교적 상상력』, 역락, 2004.

황폐강 외 3인 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8.

【Abstract】

Comparison of ‘Oriental’ and ‘pure’ perception in 『The Principles of Poetry』 and 『The Critical Biography of Poetic』

Lee ByeongJu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perceptions of ‘Oriental’ and ‘Pure’ in Cho-Jihoon’s ‘The Principles of Poetry’ and Song-wook’s ‘The Critical Biography of Poetic’.

Cho Ji-hoon’s ‘Oriental’ was called in the process of raising Korean literature to a position equal to that of Chinese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Song-wook recognizes the ‘Oriental’ to be a critical ability that synthesizes nature, society, politics, and religion. Song-wook criticizes writers who have not adequately embraced his version of ‘Oriental’, and demands the expansion of Korean literature tradition to Europe.

The perception ‘pure’ that Jo Ji-hoon believes is purity in literary topics and “implicative life(함축적 생명)” Songwook criticized Jo Ji-hoon’s view as ‘artificial’ language. In the case of Songwook recognized ‘Pure’ as “a new sentence based on oral language spoken by ordinary people” according to “history, sociality and experience” suggested by Elliott’s view of language.

【Key words】 : Cho-Jihoon, the principles of poetry, Song-wook, the critical biography of poetic, korean poetic theory, Oriental, Pure

이병주

공군사관학교 인문학처 어문학과 조교수

(2818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교수부 어문학과

전자우편: blue_sky36@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